

영유아 건강과 보육, 간호역할

한 경 자*

1. 서론

영유아기는 생애주기의 출발점으로 이 시기의 건강은 일 개인에게 평생건강의 기초가 되며 (Hertzman & Weins, 1996) 한 사회 인구집단의 건강잠재력과 재생산에 영향을 미쳐 차세대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영아에게 건강증진은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영유아의 건강은 건강한 발달의 기초가 되며,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하며 육구충족을 어머니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영유아에게 그의 어머니와 형성하는 모-아 상호작용은 발달을 도모할 최초의 사회적 환경이 된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는 무엇인가?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Cook(1999)이 말했듯이 “어린이와 그들의 부모, 나아가 미래 사회의 안녕(well-being)이라는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육은 사회의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하여 양질의 부모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한 제안에 공감하면

서 우리 나라에서 보육의 이념은 무엇인가? 에 대하여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영유아는 여건만 충족된다면 건강과 발달을 향한 자기개발능력이 있고,
- 보육은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건강과 발달을 지원하는 여건 마련의 서비스에 초점이 있다고 본다.
- 차세대 인적자원으로서 영유아의 건강과 발달을 위한 정서적, 기본적 요구충족기능의 부모역할 공유 그리고 어린이 가족의 양육 능력증진은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할 보육사업의 핵심기능이라고 본다.
- 그러므로 영유아보육사업은 한 전문분야의 노력만으로는 그 근본목적은 달성할 수 없고 여러 전문인력의 전문성이 통합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영유아 보육법

1999. 5. 19 보건복지부령 제110호에 의하면 보육이라 함은 '保護者가 勤勞 또는 疾病 기타 事情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幼兒를 心身의 보호와 건전한 敎育을 통하여 건강한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社會成員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保護者의 經濟的, 社會的 活動을 원활하게 하여 家庭福祉增進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라고 보육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幼兒라 함은 '6歲미만의 就學前 兒童을 말한다'라 하고 있고 보육시설이라 함은 '保護者가 勤勞 또는 疾病 기타 事情으로 幼兒를 保護하기 어려운 경우에 保護者의 委託를 받아 幼兒를 保育하는 施設을 말한다'고 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를 保育施設에서 幼兒의 保育, 健康管理 및 保護者와의 相談, 기타 業務를 담당하는 者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제 18조에서 保育施設에서의 保育은 幼兒의 身體的, 知的, 情緒的 및 社會的 발달 등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保育內容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육시설이라 함은 保護者가 勤勞 또는 疾病 기타 事情으로 幼兒를 保護하기 어려운 경우에 保護者의 委託를 받아 幼兒를 保育하는 施設이라고 말한다.

보육수요추계와 보육 발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육발전기획단(2001)의 발표에 따르면 취업모의 0~5세 아동 1,940천명을 보육수요 아동으로 추계하고 있고 이 중 가정에서 양육이 가능한 아동을 제외한 실제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1,094천 여명으로 추계하고 있다.

보육발전기획단(보건사회연구원, 2001)에서 발표한 보육제도개선 방향은 보육사업의 질 개선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종사자 자질 향상, 우수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보육시설 운영 개선,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 그리고 아동보육 종합정보망(Educare-Net)을 강화하겠다고 하였

다. 그리하여 보육의 기본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보호 : 심신의 세심한 보호, 가정 같은 분위기를 조성, 정서적 안정감 유도
- 교육 : 신체, 사회, 지적 및 언어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제공 및 자기존중감 발달
- 영양 : 충분하고 균형있는 영양공급 및 바른 식습관 지도
- 건강 : 영유아의 신체, 정서적 건강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 제공
- 안전 : 영유아 스스로 자신의 안전 및 보호 능력 및 기술 지도
- 부모에 대한 서비스 : 부모참여, 부모교육, 보육과정의 관찰 등을 통한 보육 효과 제고
- 지역사회와의 교류 : 지역사회 인사의 보육활동에의 참여, 지역사회의 보육시설 활용, 보육시설의 지역사회 시설의 활용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보육 프로그램의 운영

II. 인간의 뇌발달과 건강

1. 인간발달은 생물학적 본질과 양육환경사이의 역동적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변화이다 (Shore, 1997).

예를 들어 유전자는 아기의 기질적 특성을 결정하지만, 심지어 태중에도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뇌신경학자들은 이러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뇌 발달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인간의 뇌에 요구되는 기능은 말할 수 없이 방대하다. 단 하나의 이 기관은 체표면, 내부기관으로부터 수백만 개의 감각수용체에 보고되는 세상의 정보들을 수용하고 처리한

다. 즉, 이것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과업이다. 이러한 과업은 수 십억개의 뉴런(뇌세포)과 수 조의 시냅스(연결체)사이에서 일어난다. 시냅스의 수는 출생 후 3세 이전까지 상당량 증가한다. 뉴런은 이 연결체가 있음으로서 효과적인 연결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연결은 영유아기 초기에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한 개의 뉴런은 15,000개의 시냅스를 형성한다. 그리하여 출생 후 2세에 이 시냅스의 수는 어른의 수준에 도달한다. 이런 양식으로 어린 영유아의 뇌 밀집도가 높아지며 생후 3년에 영유아의 뇌에는 1000조의 시냅스, -성인의 2배-에 이르며 이러한 수는 첫 10년간 유지된다.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시냅스는 생산보다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아동이 성장하면서 풍부한 시냅스들은 복합적이고도 강력한 신경통로체계를 형성시킨다. 그러나 어떤 연결은 보존하고 어떤 것을 버리는가하는 것은 조기의 경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험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생후 첫 일년의 뇌 발달에 영향을 준다.

특히 생후 첫 일년간 뇌의 대사활동은 이전의 과학자들이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생후 2년의 유아의 뇌는 성인수준으로 활동적이며, 이는 증가하여 3세에는 성인의 뇌활동의 2배반에 달하여 10세까지 유지된다. 이러한 자료들은 영유아기의 학습능력에 대한 생물학적 증거를 제시하여 준다.

2. 초기 돌봄의 질은 인간의 발달, 학습능력, 신체·정서적 조절능력에 결정적이며 영구적인 영향력이 있다.

따뜻한, 반응성 높은 돌봄은 영아를 편안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건강한 발달에 절대적 요소이다. 돌보아 주는 양육자와의 안정된 애착관계는 후에 스트레스나 충격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로부터 보호해주는 생물학적 기능, 즉 면역기

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네소타 대학의 Megan Gunnar(1996)는 어린이의 침속에 함유된 cortisol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스트레스반응을 연구하였는데 만성적으로 cortisol 수준이 높은 아동들에게서 인지, 운동, 사회적 발달 지체의 빈도율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cortisol은 신체·심리적 충격사건이 있을 때 상승되는 것으로 대사,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고 특히 뇌의 특정부분의 뉴런을 파괴시키고 시냅스의 수적 감소에 취약하게되는 뇌 기능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능력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더 높는데 왜 그러한지에 대하여 Gunnar는 관심이 있었다. 그의 연구결과는 생후 첫 일년 이내에 민감성 있는 돌봄을 받았던 아이들이 cortisol이 분비되는 초기 반응에 대하여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분비를 차단시킬 수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안정된 애착관계의 가족력이 있는 아동에게서 후기에 스트레스에 당면했을 때 행동문제가 훨씬 덜 나타날 수 있다는 생물학적 증거를 제공하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초기 영유아의 발달이 단지 물리적 조건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환경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

영유아들은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배운다. 호기심 있고, 자신있고, 학습할 수 있게 자라도록 영유아들을 돕기 위해선 따뜻하고 일관성 있는 돌봄으로서 돌보는 양육자와 개별적인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설 내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수적 비율은 매우 중요하다. 표준으로 규정된 아동 : 보육교사의 비율을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국내에서 보육시설 내 보육교사와 개개 영유아와의 개별적인 상호작용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의 아동 : 보육교사 수

아동연령	한국	미국
0-24개월	5 : 1	3 : 1
15-30개월	7 : 1	4 : 1
31-35개월		5 : 1
3 세	20 : 1	7 : 1
4 세		8 : 1
5 세		8 : 1

III. 결 론

건강한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현 사회의 궁극적 목적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그러나 아이들을 기르는 이 과업은 부모만이 그 책임을 지기엔 너무 막중하여 사회가 나누어 짊어져야 한다(Rheingold, 1974).

1. 영유아에게 적절한 양육환경을 조성시켜주어야 한다.

영유아가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조기에 적절하게 주어지는 돌봄과 교육은 영유아 건강과 안녕에 절대적이다. 생후 3년까지의 시기는 특히 중요하다. 부모들에게 민감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만약 그들이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면, 아이의 건강과 발달에 이해가 깊은 대리 양육자가 최대한 각 아이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게 돌보아 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2. 장애의 예방노력이 필요하다.

예방이 무엇보다도 효과적이다. 그러나 필요할 때 신속하게 집중적인 중재 필요하다.

영유아에게 적절한 시기에 조직적으로 일관성 있게 긍정적으로 주어진 따뜻한 반응들은 영유아가 발달선 상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장애들을 조화롭게 조절할 능력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심각한 스트레스나 충격에서 쉽게 회복할 수 있는 자원으로써 활용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각 아동의 요구에 부합된, 최상의 시기에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3. 각 아동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모든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발달과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 발달지연이나 장애의 위험성은 운명이 아니다. 신체적, 인지·정서,

3. 인간의 뇌는 비상한 변화능력이 있다. 그러나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전 일생을 통해 학습이 진행되지만 특정한 형태의 학습이 특별히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적정 발달의 시기, 즉 '결정적 시기' 혹은 '변형시기'가 있다. 뇌의 변형가능성은 뇌 자체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시기에 집중적인 중재로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지지하기 위해선 가능한 조기에 중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한 가지 전략만으로 적정 발달을 이룰 수 없고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4. 뇌의 변형가능성은 또한 부정적 경험이나 적절한 자극의 부재에서 더욱 심각하고 지속적인 악 효과를 초래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생후 초기에 충격, 피학대 및 스트레스 등의 초기 경험은 지적 사고, 정서를 조절하는 뇌의 특정영역에 발달을 저해하여 극심한 불안, 우울, 및 건강한 애착관계의 형성불능을 초래하여 발달장애문제를 야기시킨다. 장기간의 여러 연구들은 초기에 양육자와의 애착형성 실패가 사회적 폭력에 깊이 관련돼 있다는 것을 일관성 있게 보여준다.

사회적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속적 노력은
매 발달시기마다 끊임없이 지지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Cook, P. S.(1999). Rethinking the early childcare agenda, Who should be caring for very young children?.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170, 29-31.
- Gunnar, M. R.(1996). Quality of and buffering of stress physiology: Its potential in protecting the developing human brain. University of Minnesota Institute of Child Development.
- Hertzman, C., & Weins, M.(1996). Child development and long-term outcomes: A population health perspective and summary of successful interventions. Social Science Medicine, 43(7), 1083-1095.
- Shore, R.(1997). Rethinking the Brain: New Insights into Early Development. New York, NY: Family & Work Institute.